

# 북구, '해외시장개척단' 1천만불 수출계약

### 인나·싱가폴 등 2곳서 수출상담회 1085만달러 계약·2547만달러 상담 4개 기업 대형 온라인몰 입점 계약

광주 북구의 해외시장개척단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서 1000만불 수출 계약을 성사하는 등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출 시장을 확대하며 해외 판로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10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지역 중소기업 수출 판로 모색을 위해 추진된 '해외시장개척단'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서 1085만 달러 수출계약을 비롯해 2547만 달러 규모 수출 상담, 대형 온라인몰 입점 계약 체결 등 성과를 거뒀다.

해외시장개척단은 KOTRA 광주전남 지원단과의 협력으로 △의료기기 △식품 △미용·뷰티 등 생활소비재 제조에 경쟁력을 보유한 지역 중소기업 10곳이 참여했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市),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운영된 이번 해외시장개척단은 2개국 현지에서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열고 참여 기업 전 제품에 대해 판촉 활동을 펼쳐 1085만 달러 수출계약 체결과 2547만 달러 규모 수출 상담을 성사했다.

또 싱가포르에서는 세계한인무역협회 싱가포르지회와 상호 경제 발전 교류 및 협력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했으며, 참여 기업 중 온라인 시장 경쟁력이 있는 4개 기업은 대형 온라인몰(Shopee 등) 입점 계약도 이뤄졌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동부자바투자청에 방문해 자바섬 경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동자바 시장 진입에 필요한 각종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도 했다.

북구는 이번에 교류한 현지 바이어와의 관계를 지속 관리해 참여 기업 제품 수출이 추가·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해외시장개척



광주 북구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지역 중소기업 수출 판로 모색을 위해 추진한 '해외시장개척단'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서 1085만 달러 수출계약을 비롯해 2547만 달러 규모 수출 상담, 대형 온라인몰 입점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세계한인무역협회 싱가포르지회와의 MOU 체결 기념사진. **광주 북구 제공**

단 파견을 통해 우리 지역 중소기업이 보유한 해외시장 진출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해외시장 판로 다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3월 LA·샌디에이고 등 미주 시장을 대상으로 광융합무역촉진단을 운영해 총 1000만달러 규모 수출 계약을 달성한 바 있다. **윤준명 기자**



###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 전달 동구 총장로1·2·3가 상인회

광주 동구는 총장로 1·2·3가 상인회로부터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릴레이 기부'로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이번 릴레이 기부에는 총장로 1·2·3가 상인회에 앞서 남광주해뜨는 시장, 남광주시장, 대인시장 등이 참여해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10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으게 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를 기부 가능하고, 지정기부를 하게 되면 지정기부사업의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동구는 지난해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사업으로 '청소년 E.T 야구단 지원사업',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 등을 진행 중이다.

총장로 1·2·3가 상인회 관계자는 "지역 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공감하여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면서 "오랜 세월 함께한 동구를 위해 기부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보내준 나눔의 손길에 감사드린다"면서 "고향사랑 기부사업을 통해 더 가치 있는 동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 '시니어 맞춤형' 스마트 교육 남구, 월산5·백운2·대촌동서

광주 남구는 관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스마트 마인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4차산업 시대를 맞아 시니어 주민들의 디지털 사용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난 4일 월산5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과 25일에 각각 백운2동과 대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다.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은 회당 20명씩 60명으로, 신기술 습득에 관심을 두고 있는 노인층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참가자들은 인간의 학습과 추론, 지각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인공지능 및 스마트 로봇 소프트웨어로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개발하는 오조봇 코딩을 교육받는다.

남구가 지난해 관내 4곳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스마트 마인드 교육을 실시한 뒤 참가자 7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높은 만족도가 나타난 바 있다.

남구 관계자는 "맞춤형 스마트 마인드 교육은 현대 사회의 기술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시니어들이 겪는 디지털 격차 해소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 재개발구역 이주실태 합동점검 서구, 자율방범대·재개발조합 등

광주 서구는 지난 5일부터 3일간 관내 재개발 정비구역 이주실태 관련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재개발 정비구역의 주민 안전과 원활한 이주 철거를 위해 서구는 관할 파출소, 자율방범대, 재개발조합으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이주가 진행 중인 광천동 재개발사업 구역과 양동3 재개발사업 구역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구역 내 빈집 관리 적정 여부, 도로상 무단 적치 폐기물 실태조사, 안전 및 청결 등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구는 올해 초 재개발구역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민관 협력을 통해 구역의 안전·청결 등의 문제 해결 방안을 지속 논의했다.

특히 광천동 재개발사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 구역 관리를 위해 200여 대의 CCTV를 설치해 현장을 살피고 서구 자율방범대와 재개발조합의 방법대원이 상시 순찰하고 있다.

서구 주택과 관계자는 "구역 철거 전까지 관련 기관, 재개발조합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안전하고 쾌적한 이주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 광천동 재개발구역과 양동3 재개발구역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주를 완료하고 철거될 예정이다.

**정상이 기자**



광주 광산구 더불어락노인복지관은 지난 7일 더불어락노인복지관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화합하는 '제15회 대동회·예술제'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 광산구 제공**

## 광산구더불어락복지관, '제15회 대동회·예술제'

### 만민공동회서 고령사회정책 제안

광주 광산구 더불어락노인복지관은 지난 7일 더불어락노인복지관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화합하는 '제15회 대동회·예술제' 행사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화양연화(花樣年華)-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소중한 순간'이라는

주제로 길놀이, 기념식, 만민공동회, 체험행사 등 다채롭게 구성했다.

대동회에서는 만민공동회를 진행하면서 고령사회정책을 제안했다.

어르신 디지털 격차 해소에 따른 교육 확대와 웰딩 문화 조성 사업 확대를 제안했으며, 투표를 통해 선정된 제안을 구청에 전달했다.

예술제는 노년사회화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한 어르신들을 주제로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김백수 더불어락노인복지관장은 "어르신들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동회는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상상이 일상이 되고 이상이 실현되는 복지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 서구, 유·청소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접수

### 오는 29일까지 온라인·방문 신청

광주 서구는 오는 29일까지 저소득층 유소년과 청소년,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2025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접수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스포츠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구에 거주하는 5-18세 저소득층 유소년 및 청소년에

게 월 최대 10만5000원, 5~69세 장애인에게는 월 최대 11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29일까지 온라인 및 서구 관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나 서구청 체육관광과에 방문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일반스포츠강좌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서구는 저소득층 유소년·청소년 1086명, 장애인 142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12월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2025년 1월부터 스포츠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해 저소득층 유소년, 청소년과 장애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주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

